

〈특집 1: 물품과 지역성: 동유라시아의 진상과 증여〉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

이 승 호 **

〈목차〉

- I. 머리말
- II. 5~6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涉羅의 ‘珂’
- III. 7~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耽羅鯨’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주변국과 교류 과정에서 전달한 탐라국의 진상·조공품에 대하여 접근해 보았다. 특히 탐라국 대외교류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백제사나 신라사 혹은 일본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5~8세기 탐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탐라국 중심의 시선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대외 교섭에 활용되었던 탐라국 특산품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5~6세기 탐라국의 대외교섭은 백제와 고구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교섭의 동인과 전개 과정은 탐라국의 주체적인 정세 판단과 대외교섭 노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HK연구교수

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476년 백제와의 첫 교섭을 계기로 5세기 후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탐라국이 5세기 말경에 백제가 아닌 고구려를 주요 교섭 대상으로 설정하고 '珒'를 진상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660년 백제 멸망을 기점으로 탐라가 신라와 일본 및 당을 상대로 다각적인 교섭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탐라국은 耽羅方脯·耽羅鰓 등의 자국 특산물을 활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牛·鹿·鰓·海藻 등이 당시 탐라의 주요 산물이자 대외교섭에 활용된 진상·조공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 주제어

주호(州胡), 섭라(涉羅), 탐라(耽羅), 옥가(玉珂), 탐라복(耽羅鰓)

I. 머리말

3세기 무렵 『三國志』 東夷傳에서 '州胡'라는 이름으로 역사 상에 첫 등장을 알린 제주의 고대 사회는 곧 '耽羅'¹⁾라는 국명을 가진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며 동아시아의 여러 세력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기

1) 耽羅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와 『日本書紀』 등의 문헌에서 '耽羅' 혹은 '耽羅'로 확인된다. 또 『三國遺事』에는 '毛羅(托羅)'로 전하며, 『魏書』 고구려전에서는 '涉羅', 『隋書』와 『北史』 百濟傳에서는 각각 '身冉牟羅國'과 '耽牟羅國'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新唐書』 劉仁軌傳에는 '儋羅'로, 『高麗圖經』에서는 '聃羅'로 전한다(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89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105~16쪽).

록에 보이는 州胡와 탐라를 통해 고대 제주 사회의 역사 전개와 대외교류 양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²⁾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진전 속에 고대 제주 사회의 역사 전개와 발전 방향 및 그 역사에 내재한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그 역사의 顛末은 여전히 많은 부분 베일에 쌓여 있으며, 전하는 기록이 희소한 만큼 관련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예컨대, 기록에서 州胡가 교류·교역하였다고 전하는 ‘中韓’에 대한 해석 문제나 대략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에 고구려에 ‘珂’를 진상하였다는 ‘涉羅’의 정체, 6~7세기에 걸쳐 耽羅國이 교섭하였던 백제·신라·일본과 탐라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고 8세기 무렵 일본 측 사료에 보이는 ‘耽羅鰭’에 담긴 역사상 등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지점에서 여러 연구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³⁾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2) 森公章, 「耽羅方朮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續日本紀研究』 239, 1985;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2018a;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본 논문 또한 이상의 연구 성과에 의지한 바가 큼을 밝힌다.

3) 각각의 쟁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탐라국」 研究 및 장창은, 「古代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의지하여 5~8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을 개관해 가며 각각의 쟁점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시기 탐라국 대외교섭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물품과 지역성: 동유라시아의 진상과 증여”라는 본 특집 주제에 맞추어 당시 탐라국의 대외교류 과정에서 활용된 진상·증여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보고자 한다.⁴⁾

한편, 그동안 탐라국의 대외교섭에 대한 검토는 백제사나 신라사 혹은 일본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백제의 질서에 의존하고, 백제에 의한 王位の 보호에 의해서만 결집할 수 있었던 탐라 지배층은 백제의 위기에 임해서 일본에 사자를 파견했다. 백제의 위기는 곧 탐라의 위기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가케이 도시오[笥敏生]의 언급은 그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⁵⁾ 물론 전하는 기록만 놓고 보면 탐라국의 대외관계는 7세기 중반까지는 백제에, 백제 멸망 이후로는 신라에 종속된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탐라인은 스스로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후세인들은 탐라인이 아닌 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탐라 역사의 흔적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전하는 기록만을 가지고 탐라국의 역사가 것처럼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백제나 신라 중앙으로부터 바다를 두고 격절되어 있는 탐라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탐라국의 대외 활동은 그러한 인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기 탐라국의 대외교섭

4) 본고는 2020년 11월 12일에 “진상·증여품을 통해서 본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특히 이 글이 작성되기까지 당일 발표의 토론자로 오셨던 김경주 선생님의 교시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 笥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記研究』 262, 1989; 「耽羅王權과 日本」, 『탐라 문화』 10, 1990, 266쪽.

사는 탐라국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5~8세기 탐라국의 대외교류 전개 양상과 교류 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사실 고대 탐라의 대외교류 및 物品 교역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 글이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음을 잘 안다. 다만 본 논문에서의 접근이 5~8세기 탐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탐라국의 주체적 대외 활동이라는 시선에서 환기해볼 수 있다면, 목적인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5~6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涉羅의 ‘珂’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3세기 무렵 고대 제주 사회는 바다를 건너 주변 세력과 교류를 전개하였는데, 아래의 사료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료 (가):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또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비교적 키가 작고 언어는 韓과 같지 않다. 모두 鮮卑와 같이 髡頭를 하고, 오직 옷은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 옷은 上衣만 있고 下衣는 없는데,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韓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市買中韓].⁶⁾

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草,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보이는 ‘州胡’를 지금의 제주도로 보는 데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하며,⁷⁾ 특히 기사의 밑줄 친 마지막 구절 “市買中韓”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州胡’가 ‘韓’과 교역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제주도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⁸⁾ 그런데 “市買中韓”의 풀이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中韓’에 대해 일찍이 이병도가 “특히 馬韓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뒤로⁹⁾ 이러한 시각을 계승하는 연구가 많았지만,¹⁰⁾ 한편으로는 1928년 제주시 山地港 공사 중에 출토된 五銖錢·貨泉 등 중원지역 화폐와 출토 토기 양상을 근거로 하여 『三國志』에서 지칭하는 ‘中韓’을 弁韓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¹¹⁾ 또 영산강 유역의 新彌諸國이 그 대상일 것으로 지목하는 견해도 근래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¹²⁾ ‘中韓’을 중국과 三韓의 합칭으로 보고 州胡가 중국 및 한반도와 해상교류를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¹³⁾

7)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영남고고학보』 58, 2018a, 27~28쪽;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92~93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09쪽.

8)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93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10쪽.

9) 이병도, 「第4篇 三韓問題의 研究: 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299쪽.

10) 이청규,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18~319쪽 및 334쪽. 진영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州胡의 교섭 대상을 新彌國 중심의 영산강 유역 사회로 본 바 있다(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219쪽).

11)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34~37쪽.

12)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218~219쪽.

13)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 서경문화사, 2017, 92쪽. 강봉룡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산지항 및 광지리에서 출토된 漢代 화폐, 용담동에서 출토된 철제유물, 삼양동에서 출토된 환옥제품 등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일찍부터 제시되어 왔던 것인데, 일례로 강창화는 이와 같은 漢系 유물들이 당시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동방교역로를 통해 제

그런데 5세기 무렵 편찬된 『後漢書』 東夷列傳에서 위의 기사와 대응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范曄이 이 부분을 “貨市韓中”으로 고쳐놓았음을 볼 수 있다.¹⁴⁾ 이에 『三國志』 판본 중에도 “市買中韓”이 아닌 “市買韓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韓中”과 “中韓”은 판본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큼을 고려하여 주호국이 “韓中”과 교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⁵⁾ 그러나 『三國志』의 여러 판본을 대조해보면, “市買中韓”을 “市買韓中”으로 교감한 중화서국본을 제외한 소흥본·소희본·촉각소자본·남감본·급고각본·무영전본·백납본 등 현전하는 모든 『三國志』 판본에서 “市買中韓”으로 쓰고 있는 만큼¹⁶⁾ “市買中韓” 구절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市買中韓”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우선 “市買中韓” 구절을 단순히 “韓과 [물건을] 사고팔았다” 혹은 “韓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라고 풀기에는 ‘中’의 해석에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 굳이 ‘中’을 풀이한다면 문맥상 어조사격의 “~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그렇게 보아도 “市買中韓”보다는 “市買韓中”이어야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또 “中韓”을 “중앙의 韓” 등으로 거칠게 이해하여 目支國 등과 연결시키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中韓”을 ‘중국과 三韓’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경청할 필요

주도에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강창화, 「耽羅 以前의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 10, 2003, 31~34쪽; 「고대 탐라(耽羅)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105~107쪽).

14)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 條,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15)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93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10~111쪽.

16)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증세사연구소 편, 『中國正史 東夷傳 校勘』, 2018, 41쪽.

가 있다.¹⁷⁾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1928년 제주시 산지항 공사 중에 출토한 五銖錢·貨泉·大泉五十·貨布 등 18점의 화폐를 비롯하여 제주 각지에서 확인되는 漢式 유물¹⁸⁾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泉五十과 貨布가 남한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출토되었다는 지적도 주목되는데,¹⁹⁾ 이는 이들 출토 화폐가 한반도 남부의 세력과 교류를 통해 건너온 유물이 아닐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市買中韓”의 “中韓”은 곧 ‘중국과 韓’, 구체적으로 ‘낙랑·대방군 및 三韓’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²⁰⁾

다만, 이러한 해석도 3세기 당시 ‘中’이라는 글자가 곧바로 ‘中國’ 혹은 ‘郡縣’과 연결되는 표기로 사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樂浪郡·帶方郡 등을 염두에 둔 표기였다면, “市買中韓”이 아닌 “市買郡韓”으로 쓰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결국 여기서의 ‘中’을 ‘中國’ 혹은 ‘郡縣’과 연결 짓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현재로서는 이를 문맥상 어조사격의 “~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구절을 잠정적으로 “韓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 정도로 풀이해 두고자 한다.²¹⁾

17)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 92~93쪽.

18) 山地港 공사에서 출토한 유물에 대해서는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125쪽 <표 1>을 참조.

19)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94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12쪽.

20) 이와 관련하여 당시 탐라 사회가 마한·변한을 매개로 낙랑군과 간접교섭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랑군 자체와도 일정한 교역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참고가 된다(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155~156쪽).

21) 이 글을 발표할 당시 필자 또한 “市買中韓” 구절의 “中”에 대해 ‘中國’ 혹은 그와

아무튼 1세기 초에 사용된 중원지역의 화폐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三國志』의 “市買中韓” 구절을 통해 고대 제주 사회가 바다를 통해 일찍부터 주변 여러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시 탐라는 한반도 서남해안과 일본 규슈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역로 상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위세품을 수입하며 낙랑→한반도→일본으로 연결되는 교역 루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고 본다.²²⁾ 그리고 이와 같은 대외교류의 전개는 3세기 무렵 ‘州胡’에서 ‘耽羅’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³⁾

하지만 이러한 탐라의 대외교류 양상은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南遷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료 (나)-①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夏4月 條

연결된 郡縣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후 필자는 위와 같은 해석을 보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서 서술한 해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지항 출토 漢系 유물이 군현과 직접 교류의 산물이기보다는 당시 국제무역항이었던 泗川의 勒島貝塚 집단과 교류 과정에서 획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토론자 김경주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주 선생님의 지적대로 州胡와 漢郡縣 간의 직접 교섭이 있었다면 漢式 토기의 유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오히려 韓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입된 토기가 해당 시기 유적에서 다량 확인된다는 점도 州胡와 漢郡縣의 직접 교섭보다는 韓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교류를 상정케 한다.

22)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155쪽.

23)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30~31쪽 및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47~52쪽;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54~61쪽. 3세기를 전후하여 제주에는 마한·변한 지역과의 교섭을 통해 철기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문물이 도입되고, 원거리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읍락(거점 취락)과 정치체가 등장하며 수장층이 출현한다고 한다. 특히 대외교역의 거점으로서 제주도 서북지역의 외도동·용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國邑’에 비견되는 거점 취락이 형성되면서 ‘탐라 정치체의 출현’을 상정케 하는데, 곧 이와 같은 사회적 진전이 ‘州胡’ 사회가 ‘耽羅’로 나아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文周王 2年(476)] 여름 4월, 耽羅國이 方物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며 使者를 恩率로 삼았다.²⁴⁾

사료 (나)-②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8月 條

[東城王 20年(498)] 8월, 王이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자 親征에 나서 武珍州에 이르렀는데, 耽羅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비니 곧 그만두었다. [耽羅는 곧 耽牟羅이다.]²⁵⁾

위의 사료 (나)-①·②의 기록은 5세기 후반 耽羅國(耽羅國)과 백제의 교섭 기사이다. 특히 사료 (나)-①은 476년 탐라국과 백제가 처음 통교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기 후반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처음 성립하였고, 이때부터 탐라는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속국으로 위치하였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이다.²⁶⁾ 하지만 아래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이해와 반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료 (다): 『日本書紀』 卷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2年 12月 條

[繼體天皇 2年(508)] 12월, 南海 가운데 耽羅人이 처음으로 百濟國과 통교하였다.²⁷⁾

2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夏4月 條,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2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8月 條,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卽耽牟羅.]” 흔히 이 東城王 20년 조 기사에 보이는 탐라국에 대해 원문 표기를 “耽羅”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국사기』 정덕본이나 옥산서원본에서는 모두 “耽羅”로 적고 있다. 물론 ‘耽’은 ‘耽’의 俗子이므로 양자 간에 의미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26)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100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21~123쪽.

27) 『日本書紀』 卷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2年 12月 條, “十二月, 南海中耽羅人初

위에서처럼 『日本書紀』에서는 백제와 탐라의 첫 교섭을 508년의 일로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료 (나)-①·②의 '탐라국' 혹은 '탐라'를 제주도에 위치한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개진된 바 있다. 즉 사료 (다)의 『日本書紀』 기록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 사료 (나)-②에서 東城王이 이끄는 군대가 도착한 지역이 武珍州였으므로 그의 군대가 제주로 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日本書紀』 「神功紀」의 삼한 정벌 기사를 백제 근초고왕 시대의 일로 치환하여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전남 지역을 영유했다고 보는 주장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사료 (나)-①·②의 탐라를 해남 강진 일대의 忱彌多禮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⁸⁾ 그리고 최근까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연구도 여러 편 제기된 바 있다.²⁹⁾

하지만 사료 (나)-①·②의 탐라국 혹은 탐라를 忱彌多禮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日本書紀』 신공기 49년 조 기사에서는 忱彌多禮가 近肖古王 시대 백제에게 도록을 당하였다고 전하는데, 이러한 忱彌多禮의 상황은 탐라국의 역사 전개에 비추어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³⁰⁾ 기사의 신뢰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백제가 바다 건너 제주도로 정벌을 감행하여 도록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사료 (다)에서 보듯 “南海 가운데 耽羅人”이라는 『日本書紀』의 기사는 당시의 탐라가 곧 오늘날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료 (다)에 보이는 『日本書紀』의 ‘耽羅’를 제주도로 보아야 한다면, 사료 (나)-①·②의 탐라국·탐라

通百濟國.”

28)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5~7쪽.

29)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36~38쪽 및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102~103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24~130쪽의 논의를 참조.

30)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忱彌多禮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3, 114~115쪽.

또한 제주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476년 무렵까지 백제의 영향력이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에 까지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료 (나)-①·②의 기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료 (나)-①에서 탐라국이 백제에 方物을 바치는 조공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나)-②에서도 東城王이 탐라 정벌을 기도하며 탐라가 貢賦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위의 두 기사는 곧 탐라국이 당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맹주의 지위에 있었던 백제에 대한 조공 외교를 전개한 사실을 전할 뿐, 이것이 곧바로 백제의 탐라 복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³¹⁾ 특히 사료 (나)-①에서 탐라와 백제의 첫 교섭 기록이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바로 그 이듬해에 일어난 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탐라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던 국제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료 (나)-①의 탐라-백제 교섭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진행된 탐라의 능동적인 외교 행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탐라가 백제에 조공을 바쳤던 배경을 백제의 남해안 진출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각은 온전히 백제사 중심의 시선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된다. 탐라의 對백제 교섭 기록은 탐라의 입장에서 주체적인 행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³²⁾

31)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238~240쪽. 이 시기 탐라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용관계'로 바라보거나(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40쪽), 탐라가 백제의 '속국'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121~123쪽), 대체로 정치적 구속성이 크지 않은 조공관계로 바라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또한 사료 (나)-①을 기점으로 성립된 양자의 관계가 그리 오래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어지는 사료 (나)-②에서처럼 탐라가 조공을 오지 않자 東城王이 정벌을 결심했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즉 탐라국의 對백제 조공외교는 양자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의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일회성이 강한 일시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단순히 조공국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親征을 결심했다는 것도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 결국 탐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백제 측의 침공 명분일 뿐, 東城王 20년의 군사 행동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움직일만한 또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아래의 사료이다.

사료 (라) :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 條

正始 연간(504~508)에 世宗이 東堂에서 그 사신 芮悉弗을引見하니, [芮]悉弗이 전언하기를, “高麗의 이어지는 정성은 하늘에 닿고, 여러 대에 걸쳐 진실로 성실하여,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이 공물에서 빠지지 않았습시다.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珂는 涉羅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겨났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어, [고려] 國王인 臣 雲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도리를 생각하여, [부여와 섭라 백성들을] [고려의] 경내로 옮겼습시다. 두 가지 물품이 王府에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 두 도적들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³²⁾

32) 이 시기 탐라와 백제의 교섭이 이루어진 동인을 탐라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즉 “탐라 자체 내에 지배엘리트가 있어, 인접 大國에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朝貢外交를 펼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40쪽).

33)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 條,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

위의 기록은 6세기 초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北魏로 가서 자신들의 조공품 가운데 황금과 珂가 품목에서 빠진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이 위의 밑줄 친 부분으로 珂는 涉羅에서 생산되는데 涉羅가 백제에게 병합되면서 고구려가 더 이상 珂를 조공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 등장하는 涉羅에 대해서는 현재 탐라, 즉 제주도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³⁴⁾와 함께 최근에는 이를 신라의 다른 표기로 보는 견해가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³⁵⁾

그리고 이렇게 涉羅를 탐라로 볼지 신라로 볼지 의견이 갈리면서, 涉羅가 고구려에 바쳤다는 ‘珂’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기록에 보이는 ‘珂’에 대해 처음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던 진영일은 『大漢和辭典』에 정리된 ‘珂’의 용례를 인용하며 “①옥 이름(玉銘), ②소라 종류(바다에서 나며 큰 것을 珂라 하며 검고 노란 색깔을 띠며 그 뼈는 희며 말을 장식한다), ③조개로 만든 말 재갈 장식, ④재갈(馬勒), ⑤흰 마노(白瑪瑙)” 이렇게 다섯 가지 용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珂를 “탐라에서 산출되는 소라 등 종류로서 말 재갈 장식을 의미한다.”고 보고, 唐代 5品 이상의 관인이 사용하였던 말 재갈을 치장하는 옥조개[玉珂]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唐代의 귀족에게도 제주산 옥가가 귀중한 필수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⁶⁾ 반면, 涉羅를 신라로 보는 견해에서는 珂에 대한 위의 ①번 혹

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34) 이러한 견해는 조선후기 학자인 韓鎭書로부터 장도빈, 이홍직, 고창석, 이청규, 진영일, 이도하, 박남수 등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106~108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31~134쪽).

35) 이러한 견해는 현재 노태돈, 김현숙, 후보돈, 정재윤, 장창은, 井上直樹, 김진한 등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109~113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134~136쪽).

36) 진영일, 「古代 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28~29쪽.

은 ⑤번 용례에 따라 ‘白瑪瑙’로 보며, 사료 (라)에 보이는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을 나제동맹에 대한 고구려 입장에서의 외교적 修辭 정도로 해석한다.³⁷⁾

그런데 사료 (라)의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언급과 관련하여서는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북위로 건너간 正始 연간(504~508)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이때의 사행은 文咨明王 13년(504)의 일이었다고 한다.³⁸⁾ 그리고 사료 (라)에 전하는 대로 勿吉에 쫓겨 부여 왕실이 고구려에 귀부한 것은 고구려 文咨明王 3년(494)의 일이다.³⁹⁾ 그렇다면 고구려는 芮悉弗이 북위로 간 504년 이전, 그리고 夫餘가 勿吉에 쫓겨 고구려로 내투한 494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료 (나)-②에서 東城王이 탐라 정벌을 기도했던 498년은 시기적으로 잘 들어 맞는다.⁴⁰⁾

즉 사료 (라)에서 涉羅가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은 사료 (나)-②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보아 涉羅는 곧 탐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5세기 후반 백제와 첫 교섭을 진행하였던 탐라는 곧 대외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고구려와 접촉하였고, 고구려에 ‘珂’를 헌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억측해보자면, 476년 백제와 첫 교

37)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109쪽;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제의 재검토」, 135쪽.

38)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3年 條,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3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年 條, “三年, 春正月, 遣使入魏朝貢. 二月, 扶餘王及妻孥, 以國來降.”

40)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 36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55쪽.

섭을 진행했던 탐라가 고구려의 강공을 받고 남천할 수밖에 없었던 백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구려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⁴¹⁾ 탐라는 백제보다도 당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던 고구려에 조공하는 것이 자국의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국제적인 교류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확보된 고고자료에서 이 시기 고구려와 관련한 물질자료가 제주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는 탐라와 고구려 사이의 교섭 기간이 그만큼 짧았음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476년 백제와 처음 교섭한 탐라가 곧 교섭 대상을 고구려로 바꾸었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498년 東城王의 親征 시도에 의해 고구려와의 관계가 큰 진척 없이 철회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사료 (라)에서처럼 탐라가 이때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芮悉弗의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백제의 군사적 압력으로 인해 탐라가 더 이상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자 芮悉弗이 그러한 상황을 과장하여 북위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②에서 탐라가 東城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다는 대목에서 백제에 대한 탐라국의 일정한 외교적 굴복이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즉 芮悉弗의 언급에 다소 과장은 개재되어 있을지언정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 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498년에 東城王이 주도한 군사 행동으로 백제는 탐라에 대한 직접적인 병합은 아니었지만, 탐라와 고구려의 연결을 확실히 차단하고 탐라를 외교적으로 종속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탐라가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고구려와 접촉하는 상황을 인지한 백제 입장에서 이를 가

41) 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39쪽;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21~322쪽.

만히 묵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탐라와 고구려의 교류가 빈번하게 전개될 경우 자칫 탐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해안 일대 諸세력의 동요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북으로 고구려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배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남 지역 諸세력에 대한 단속 차원에서 고구려와 연결을 도모한 탐라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필수적이었다.⁴²⁾ 결국 東城王 20년 親征 시도는 배후에 위치한 탐라와 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하고, 이와 함께 전남 지역 諸세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Ⅲ. 7~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섭과 ‘耽羅鯨’

앞서 사료 (나)-②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耽羅는 498년 백제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면서 다시 백제의 조공국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이후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사서 상에 탐라의 대외교섭 기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데,⁴³⁾ 이것은 당시 탐라의 주체적인 대외 활동이 백제의

42) 이와 관련하여 당시 東城王이 탐라를 정벌하는데 금강 하구를 통해 해로로 나아가지 않고 굳이 육로로 武珍州까지 이르렀던 것은 단순히 탐라 정벌만 시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공물을 바치지 않은 탐라를 정벌할 정도로 위엄을 과시하면서 전라도 일원 諸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은 크게 참고가 된다(정재운,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252쪽). 즉 당시 백제의 군사 행동 대상은 탐라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목표’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은 武珍州 아래 나주·영암·해남·강진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43) 다만, 『隋書』 東夷列傳, 百濟條 및 『北史』 列傳, 百濟條에서는 隋 開皇(581~660) 初에 陳을 평정한 隋의 戰船이 표류하여 ‘耽牟羅國’을 거쳐 백제를 경유하

감시와 견제 속에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⁴⁴⁾ 특히 백제 聖王 16년(538)에 사비 천도가 단행되고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까지 백제의 지배력이 강하게 미치게 되면서, 탐라 또한 그러한 백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아래의 사료 (마)-①은 당시 그러한 탐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마)-① :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文武王 2年(662) 春 2月]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와서 항복하였다. 耽羅는 武德[618~626] 이래로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佐平으로써 官號를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⁴⁶⁾

사료 (마)-② :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條

[齊明天皇 7年(661) 5月] 丁巳 耽羅가 처음으로 왕자 阿波伎 등을 보내 貢物을 바쳤다. 伊吉連博得의 書에 말하기를 “신유년(661) 정월 25일에 돌아와

여 귀국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의 耽牟羅國은 곧 탐라를 말한다. 제주도에 표류한 隋 선박이 백제를 경유하여 돌아갔다는 점과 이 귀향길에 백제 사신이 함께 동행하였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사건의 해결은 백제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당시 백제가 耽羅의 대외교섭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4) 이와 관련하여 『日本書紀』에서 백제와 탐라의 첫 통교가 있었다고 전하는 508년 이후로 탐라의 대외교섭 대상이 백제로 일원화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으며(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38쪽), 武寧王 4년(504) 국세를 회복한 백제가 서해 중부 이남의 제해권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탐라와 고구려의 내왕이 막혔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37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57쪽).
- 45) 당시 백제는 탐라에 대해 조공관계에 기반한 간접지배 형태의 복속관계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42쪽).
- 46)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 2月 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 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越州에 도착하였다. 4월 1일에 越州로부터 上路로 동쪽으로 돌아왔다. 7일에 행렬이 檉岸山 남쪽에 도착하였다. 8일 닭이 울 무렵(새벽)에 서남풍을 타고 배는 大海로 나왔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여 큰 고통을 겪었다. 8박 9일 만에 겨우 耽羅嶋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섬사람 왕자 阿波伎 등 9인이 불러 위로하고, 함께 客船을 타고 帝朝에 바치려 하였다. 5월 23일에 朝倉의 조정에 奉進하니, 耽羅가 조정에 들어온 것이 이때에 시작되었다. 또 智興의 僱人 東漢草直足嶋의 참소를 당해 사신 등이 寵命을 받지 못하였다. 사신 등이 원망하여 하늘의 신에게 아뢰니, 足嶋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 당시 사람들이 칭하여 말하기를 ‘大倭 天神의 양값음인가’라고 하였다.”고 하였다.⁴⁷⁾

사료 (마)-③ :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流鬼 條

龍朔[661~663] 초에 儋羅가 있었는데, 그 왕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新羅의 武州 남쪽 섬에居하는데, 습속은 朴陋하며 大豕皮로 옷을 해입으며 여름에는 革屋에 거주하고 겨울에는 窟室에 거주한다. 그 땅은 五穀이 나고 밭갈이에 소를 사용할 줄 모르며, 鐵齒杷로 땅을 일군다 처음 百濟에 부용되었다가, 麟德[664~665] 연간에 酋長이 내조하고 황제를 좇아 太山에 이르렀고, 후에는 新羅에 부용되었다.⁴⁸⁾

47)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年 5月 條,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檉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卽招慰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又, 爲智興僱人東漢草直足嶋, 所讒, 使人等不蒙寵命. 使人等怨, 徹于上天之神, 震死足嶋. 時人稱曰, 大倭天報之近.”

48)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流鬼 條,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위의 사료 (마)-① 文武王 2년 2월 조 기사에서는 탐라가 백제에 ‘臣屬’한 시기를 唐 武德 연간(618~626)이라고 전하고 있다. 탐라가 백제와 처음 통교한 시점에 대해 앞서 사료 (나)-①에서는 476년으로, 사료 (다)에서는 508년으로 전했던 반면, 다시 여기서는 7세기 초반 무렵에 탐라가 백제에 臣屬하였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처음 성립하는 시점에 대해 기록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해당 사서마다 취득한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⁴⁹⁾ 사료 (마)-①에 전하는 ‘武德’을 ‘武寧’이나 ‘威德’의 오키로 보거나 양자를 아울러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⁵⁰⁾ 그런데 (마)-①의 기사는 7세기 전반에 이르러 탐라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기사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전까지 耽羅國은 백제에 대한 조공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7세기 초에 이르면 탐라국의 왕이 ‘佐平’ 관등을 받으며 백제왕의 신하로 위치하게 되고, 이와 같은 관계 설정에 따라 그만큼 백제의 간섭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던 사정을 반영⁵¹⁾하는 기사가 아닐까 한다. 물론 이 또한 탐라에 대한 백제의 직접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탐라국왕이 ‘佐平’ 관등을 받고 형식적으로나마 백제왕의 신하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백제의 정치적 간섭과 외교적 구속력이 한층 심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러한 양자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660년 백제의 멸망을 기점으로 탐라국은 백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독자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위의 사료 (마)-①·②·③을 보면 탐라국

49)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36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56쪽.

50)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39~40쪽.

51)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76쪽;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93쪽에 따르면, 백제에 신속한 상태에서 탐라국은 반자치적인 國體제를 유지하였지만, 대외교섭과 교류 창구는 백제를 통해 일원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은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듬해인 661년에 일본과 접촉하였고, 662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고 한다. 또 사료 (마)-③에서 보듯 같은 시기 儋羅[탐라]의 왕 儒李都羅가 唐에 입조하였으며,⁵²⁾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종결된 麟德 연간에는 그 倭長이 내조하여 황제를 좇아 太山 封禪儀式에도 참여하였다고 한다.⁵³⁾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간 백제 이외의 대외창구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탐라국이 백제 멸망을 계기로 대외교섭을 다각도로 전개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⁴⁾

한편, 사료 (마)-①에서는 탐라국이 신라 측에 먼저 사신을 보내 자진해서 속국이 될 의사를 표했다고 전하는데, 이는 이전에 탐라국이 백제와 처음 교섭할 때의 양상과 유사하다. 즉 이때 탐라국이 신라의 '속국'을 자처하였던 것 역시 양국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진행된 단순한 외교적 의례 및 수사일 뿐 이를 계기로 실제 신라가 탐라를 통제 아래 두거나 지배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663년 백제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이 白村江 전투에서 패하면서 항복한 인원 중에는 백제·일본 측 인물들과

52) 『唐會要』 卷100, 耽羅國 및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15, 朝貢에 따르면 이는 龍朔 원년(661)의 일이라 한다.

53)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5年 秋8月 條에 따르면, 이는 이른바 '就利山 회맹'을 마친 뒤 劉仁軌가 신라·백제·탐라·왜 4국의 사신을 거느리고 唐으로 돌아가 泰山에서 제사를 지낸 일을 말하는 것이다(歛訖,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我之宗廟.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資治通鑑』 卷201 麟德 2年 8月 條 및 『唐會要』 卷95 新羅傳에도 같은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54) 이에 대해 탐라가 백제 멸망 이후에도 기존 교역루트의 재건과 대외교섭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매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41쪽).

55) 660년 백제 의자왕의 항복에 따라 백제의 속국으로서 唐과 신라에 대한 항복의 의사를 표한 것이 탐라국의 당나라 조공과 신라에 대한 내항이었다는 의견도 있다(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39~40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60쪽).

함께 ‘耽羅國使’가 보이므로,⁵⁶⁾ 662년 이후로도 탐라는 백제 유민 및 일본 측과 긴밀한 연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660년대 탐라국은 신라에 稱臣하는 한편, 일본 측에도 수 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대외교섭의 루트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다. 즉 사료 (마)-①의 내항 기사는 백제 멸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탐색하는 한편,⁵⁷⁾ 당시 백제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던 신라군의 공세가 자칫 탐라국에까지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임기응변적 사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바)-①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4年 秋8月 條

[天智天皇 4年(665) 秋8月] … 耽羅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⁵⁸⁾

사료 (바)-②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6年 秋7月 條 및 閏11月 條

[天智天皇 6年(667) 秋7月] 己巳에 耽羅가 佐平 椽磨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 [閏11月] 丁酉에 錦 14필, 纈 19필, 緋 24필, 紺布 24端, 桃染布 58端, 斧 26, 鈿 64, 칼 62개를 椽磨 등에게 주었다.⁵⁹⁾

사료 (바)-③ :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8年 3月 條

56) 『舊唐書』 卷84, 列傳 34, 劉仁軌傳, “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并耽羅國使, 一時並降. 百濟諸城, 皆復歸順. 賊帥遲受信據任存城不降.”

57)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224쪽.

58)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4年 秋8月 條, “…耽羅遣使來朝.”

59)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6年 秋7月 條, “己巳,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同 閏11月 條, “丁酉, 以錦十四匹·纈十九匹·緋廿四匹·紺布廿四端·桃染布五十八端·斧廿六·鈿六十四·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60)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8年 3月 條, “三月己卯朔己丑, 耽羅遣王子久麻伎

[天智天皇 8年(669) 3月] 3월 己卯朔 己丑에 耽羅가 왕자 久麻伎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 丙申에 耽羅의 왕에게 5곡의 종자를 주었다. 이날 왕자 久麻伎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⁶⁰⁾

사료 (바)-④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2年 閏6月 條; 同 8月 條

[天武天皇 2年(674) 閏6月] 壬辰에 耽羅가 王子 久麻藝·都羅·宇麻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 [同 8月] 戊申에 등극을 축하하는 [新羅] 사신 金承元 등 中客 이상 27인을 京으로 불렀다. 그리고 大宰에 명하여 耽羅의 사신에게 詔를 내려 말하기를, “天皇이 새로 천하를 평정하고 처음 즉위하였다. … 그러므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국왕과 사신 久麻藝 등에게 처음으로 爵位를 주었다. 그 爵은 大乙上이었고 또 錦繡로 장식하였는데, 그 나라의 佐平의 관위에 해당한다. 곧 筑紫에서 귀국하였다.⁶¹⁾

사료 (바)-⑤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天武天皇 4年(676) 秋8月] 8월 壬申 朔에 耽羅 調使 왕자 久麻伎가 筑紫에 이르렀다.⁶²⁾

사료 (바)-⑥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9月 條

[天武天皇 4年(676) 秋9月] 9월 壬寅 朔 戊辰에 耽羅王 姑如가 難波에 이

等貢獻. … 丙申, 賜耽羅王五穀種. 是日, 王子久麻伎等罷歸.”

61)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2年 閏6月 條, “壬辰, 耽羅遣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 同 8月 條, “戊申, 喚賀騰極使金承元等, 中客以上廿七人於京.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即位. 由是, 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亦時寒浪險. 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 肇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自筑紫返之.”

62)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八月壬申朔,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르렀다.⁶³⁾

사료 (바)-⑦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5年 2月 條; 同 7月 條

[天武天皇 5年(677) 2月] 癸巳에 耽羅의 사신에게 배 1척을 주었다. … [同 7月] 甲戌에 耽羅의 사신이 돌아갔다.⁶⁴⁾

사료 (바)-⑧ :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8月 條

[天武天皇 6年(678) 秋8月] 戊午에 耽羅가 왕자 都羅를 보내 조공하였다.⁶⁵⁾

위의 사료 (바)에서 보듯 665년부터 678년까지 탐라는 일본에 총 7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63년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막을 내리고 이어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였으며, 676년 나당전쟁이 신라 측의 승리로 귀결 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무렵 탐라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사료 (사)-① :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9年 2月 條

[文武王 19年(679)] 2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略하였다.⁶⁷⁾

사료 (사)-② :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 冬10月 條

[哀莊王 2年(801) 冬10月] 耽羅國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⁶⁸⁾

63)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年 秋9月 條, “九月壬寅朔戊辰, 耽羅王姑如到難波.”

64)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5年 2月 條, “癸巳, 耽羅客賜船一艘.”; 同 7月 條, “甲戌, 耽羅客歸國.”

65)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6年 秋8月 條, “戊午, 耽羅遣王子都羅朝貢.”

66)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 『탐라문화』 58, 2018, 76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207~208쪽.

한편, 사료 (사)-①에서처럼 신라는 이와 같은 탐라의 행보에 제동을 걸며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사실 文武王 19년(679)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탐라국을 ‘略’하였다는 구절은 좀처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신라의 군사적 경략으로 탐라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기도 하며,⁶⁹⁾ 사신을 파견하여 ‘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의 조공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⁷⁰⁾ 또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신라가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국주의 항복을 받아내고 속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⁷¹⁾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略’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신라가 탐라에 대해 외교적 굴복을 받아내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탐라국은 679년 이후로도 일본과 통교를 지속하며 신라에 의해 강제되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는데,⁷²⁾ 그마저도 693년 11월의

6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9年 2月 條, “二月, 發使略耽羅國.”

68)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 冬10月 條, “耽羅國遣使朝貢.”

69)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138~139쪽.

70)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225쪽.

71)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41~43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61~162쪽.

72)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7年(679) 春正月 條, “己卯, 耽羅人向京.”; 同書 卷29, 天武天皇 8年(680) 9月 條, “庚子, 遣高麗使人, 遣耽羅使人等, 返之共拜朝廷.”; 同書 卷29, 天武天皇 13年(685) 冬10月 條, “[辛巳] 是日, 縣犬養連手繼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同書 卷29, 天武天皇 14年(686) 8月 條, “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同書 卷30, 持統天皇 2年(688) 8月 條, “辛亥,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同 9月 條, “戊寅, 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同書 卷30, 持統天皇 7年(693) 冬11月 條, “[十一月 丙戌朔 壬辰, 賜耽羅王子·佐平等, 各有差.”

사신 파견을 끝으로 탐라의 對日 외교가 중단되고 만다. 이는 이미 지적된 바 있듯 탐라의 對日 외교가 신라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사료(사)-②에서 보듯 신라에 대한 탐라의 조공 기사도 그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⁷³⁾ 이후 8세기 무렵 탐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는 아래와 같다.

사료(아)-① :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 11月 條

또 今月 3일에 軍曹海犬養五百依를 보내어 逆人 廣嗣의 從三田兄人 등 20여 人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아뢰기를 ‘廣嗣의 배가 知賀嶋에서 출발하여 東風을 만나 4일을 가다가 섬을 보았습니다. 배 위의 사람이 ‘저것은 耽羅嶋’라 하였습니다.⁷⁴⁾

사료(아)-② :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9年(778) 11月 條

壬子에 遣唐使의 제4船이 薩摩國 甌嶋郡에 다다랐다. 그 判官 海上真人 三狩 등은 표류하다가 耽羅嶋에 도착하여 섬사람에게 노략질당하고 억류되었다. 다만 錄事 韓國連原 등이 몰래 밧줄을 풀고 도망갈 것을 모의하여 남은 무리 40여 명을 거느리고 돌아왔다.⁷⁵⁾

사료(아)-③ :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5月 條

73)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46~51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71~176쪽.

74)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 11月 條, “… 又以今月三日, 差軍曹海犬養五百依發遣, 令迎逆人廣嗣之從三田兄人等二十餘人. 申云, 廣嗣之船, 從知賀嶋發, 得東風往四箇日, 行見嶋. 船上人云, 是耽羅嶋也.”

75)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9年(778) 11月 條, “壬子, 遣唐第四船, 來泊薩摩國甌嶋郡. 其判官海上真人三狩等, 漂着耽羅嶋, 被嶋人略留. 但錄事韓國連原等, 陰謀解纜而去, 率遺衆卅餘人而來歸.”

丁巳 朝堂에서 唐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中納言 從3位 物部朝臣 宅嗣가 勅을 선포하여, “唐朝의 天子 및 公卿과 국내의 백성은 평안하신가. 또한 海路가 험난하여 한두 使人이 혹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고, 혹은 耽羅에 노략질당하였다는데, 朕이 그것을 들으니 마음이 슬프고 한탄스럽다. …⁷⁶⁾”

사료 (아)-①·②에서 보듯이 이 무렵 일본 측에서는 탐라를 ‘耽羅嶋’로 쓰고 있어 국명이 아니라 지명처럼 표기하였다. 즉 탐라를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아닌 신라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8세기 중반 이후 제주도에서 통일신라 양식의 토기 출토량이 급증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8세기에 접어들면서 탐라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은 점차 강화되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⁷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 7세기 후반까지 탐라국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백제와 신라 그리고 唐과 일본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섭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7세기까지 탐라국의 대외관계는 주로 자신들보다 국력이 우위에 있었던 주변국을 대상으로 ‘獻方物’ 혹은 ‘貢獻’ 형태의 교섭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탐라국과 주변 세력의 교섭 과정에서 탐라국이 상대국에게 전달한 진상·조공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涉羅가 고구려에 진상하였던 ‘珮’를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조개로 만든 말재갈 장식[玉珮]’이라는 진영일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는데, 海產物이 풍부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⁷⁸⁾

76)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 寶龜 10年(779) 5月 條, “丁巳, 饗唐使於朝堂. 中納言從三位物部朝臣宅嗣宣勅曰, 唐朝天子及公卿國內百姓平安以不. 又海路艱險, 一二使人, 或漂沒海中, 或被掠耽羅, 朕聞之悽愴於懷. …”

77)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43쪽.

한편, 이 당시 탐라의 교역 물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일본 측 기록에 확인된다. 잘 알려진 “耽羅方脯”와 “耽羅鯪”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모리 기미유키[森公章]의 상세한 연구가 있었다. 그는 「天平十年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를 단서로 하여 당시 탐라와 일본의 교류상과 교역 품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天平 10년(738) 10월 ‘耽羅島人’ 21인이 來日하여 周防國을 지나 平城京으로 가던 중에 周防國이 이들로부터 “耽羅方脯”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마리 삼아 관련 사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당시 來日한 21인의 耽羅島人에 대한 領客使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당시는 탐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通交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때의 耽羅島人은 외교사절이 아니라 漂流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⁷⁹⁾ 그리고 “耽羅方脯”는 鹿·牛·猪 등으로 만든 乾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이와 함께 『延喜式』 主計上式에서 肥後國이 “耽羅鯪” 39斤을, 豊後國이 “耽羅鯪” 18斤을 각각 調로서 貢進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또 平城京 유적에서 출토된 木簡에서 天平 17년(745)에 “耽羅鯪” 6斤을

78) 이 涉羅山 珂(玉珂)의 정체와 관련하여 청자고동이 주목을 끈다. 청자고동 껍데기가 馬具 말 띠 꾸미개(雲珠) 장식에 쓰이는 사례로는 잘 알려져 있던 류큐(劉球)산 청자고동, 즉 이모가이[イモガイ]가 있다. 일본 고훈(古墳) 시대 마구 장식에 쓰였던 이모가이는 신라에서는 6세기부터 말 띠 꾸미개에 사용되기 시작하며(이현정, 「馬具로 본 昌寧地域의 馬事文化」, 『비사벌의 지배자 그 기억을 더듬다』, 국립김해박물관, 2014, 180~182쪽), 또한 가야시대 유적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최근에는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에서도 확인되었다(박천수, 「가야와 왜의 교류의 역사적 배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8, 114~115쪽; 심재용, 「김해 대성동고분의 변천과 가락국사」, 『가야고분군V-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9, 116쪽). 그런데 사실 이러한 청자고동은 제주 연안에서도 서식하는 종으로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涉羅山 珂와 관련하여 청자고동 껍데기를 연관지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79) 森公章, 「耽羅方脯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續日本紀研究』 239, 1985, 23~24쪽.

貢上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음을 소개하면서 이 “耽羅鰻”의 명칭이 산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鰻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결론 내렸다.⁸⁰⁾

이후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었는데, 진영일은 이들 탐라인 21명이 표착한 사람들이었다면 周防國이 외국 사신에 대한 식료공급액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거나 일본 조정이 이들을 번거롭게 平城京까지 불러들일 이유는 없으며, 이것은 일본 정부가 탐라인 21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보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우연한 표착이었다면 공물로 진상할 정도의 고급 물품인 “耽羅方脯”를 배에 싣고 다녔을 리 없다고 보아, 이들 탐라도인은 일본 정부와 평소 무역 거래를 하던 민간 상인이었다고 이해하는 한편, “耽羅方脯”의 ‘方’이 국가를 뜻한다고 보아 이것이 “탐라국에서 일본 조정에 貢上한 말린 고기(脯)”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耽羅方脯”는 앞서 언급한 『延喜式』 등에 나오는 “耽羅鰻”을 말하는 것으로 “탐라산 말린 전복살”로 풀이하였다.⁸¹⁾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제시되었다. 박남수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당시 大宰府로부터 周防國으로 발송된 첩에서 대금 지출을 요청한 물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대금 지출 요청서는 天平 10년(738) 4월 19일 大宰府에서 이첩한 것이다.
- ② 당시 대금 지출 요청 물품은 造蘇 4升, 納壺 4口, 乳牛 6頭, 飼稻 48束을 비

80) 森公章, 「耽羅方脯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 」, 25~26쪽.

81)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31~32쪽. 한편, 耽羅鰻의 교역과 관련하여 수송기간과 운반수단 등을 고려할 때 건조된 형태의 干鰻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41쪽).

롯하여, 交易御履料 牛皮 2領(價 稻 170束), 交易鹿皮 15張(價 稻 61束), 耽羅方脯 4具(價 稻 60束), 市替傳馬 11匹(價 稻 2750束) 등이었다. 즉 이들 물품은 大宰府에서 天平 10년(738) 4월 19일 무렵에 매입된 것이다.

- ③ 이와 관련하여 738년 정월에 大宰府에 도착한 金想純 등 147명의 신라 사신단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平城京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재부에 머물다가 같은 해 6월 24일 대재부의 향응을 받고 放還되었는데, 체류하는 동안 교역을 진행하였다.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바로 이 신라 사신단과의 교역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
- ④ 더불어 正稅帳에 “耽羅方脯”와 함께 적혀있는 “交易御履料牛皮”와 “交易鹿皮” 등의 가죽 물품도 일찍부터 신라의 사신들이 일본 조정에 ‘조공품’으로 가져갔던 물품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金想純 일행이 耽羅方脯와 함께 교역한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 牛·鹿 또한 탐라의 특산품이므로, 耽羅方脯와 함께 거래된 牛皮·鹿皮도 탐라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 ⑤ 그렇다면 天平 10년의 「周防國正稅帳」에 10월 21일 向京의 식료 제공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耽羅島人 21인은 牛皮·鹿皮 교역 및 耽羅方脯와 관련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결국 21명의 耽羅島人은 147명의 金想純 사신단 중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⁸²⁾ 신라 사신단은 6월 24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탐라도인 21명은 같은 해 10월 21일까지도 일본에 남아 식료를 제공받기도 하였는데, 아마도 이들은 乳牛의 사육이나 신발 등 가죽 제품, 탐라방포 등의 제작 기술과 관련하여 向京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天平 10년(738) 무렵 신라는 탐라의 특산물을 일본과의 교역 내지 외교적 증여물로 활용하였고, 여기에 일군의 탐라인이 참여하였다는

82) 이상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54~55쪽; 재수록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79~182쪽 참조.

것이다. 사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 주장은 모리 기미유키와 진영일의 주장에서 진일보한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기록에 보이는 耽羅方脯와 함께 牛皮·鹿皮 등의 가죽 물품도 당시 탐라의 주요 교역 물품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牛皮의 경우에는 고려 문종 7년(1053) 2월 탐라의 진상품 중에도 보이며,⁸³⁾ 또 『世宗實錄』 卷 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에서 제주의 주요 물산 중에 전복[全鮑]과 鹿茸 등도 보여 이후 시기에도 牛·鹿·鮑 등이 제주의 주요 산물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탐라 물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자료로서 『扶桑略記』에는 10세기 전반 무렵 신라인이 貪羅嶋에서 ‘海藻’를 교역하다가 표류하여 대마도 下縣郡에 표착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데,⁸⁴⁾ 여기서의 ‘海藻’ 또한 고려 문종 7년(1053) 2월 탐라의 진상 품목 중에 보이고 있어 탐라의 주요 교역 물품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 전개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

83) 『高麗史』 卷7, 世家 7, 文宗 7年 2月 條,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84) 『扶桑略記』 卷24, 延長 7年(929) 5月 17日 條, “이보다 앞서 지난 정월 13일에 貪羅嶋에서 해조를 교역하던 신라인이 對馬 下縣郡에 표착하였다. 嶋守 經國은 [이들을] 安存시켜 糧食을 공급해주고, 아울러 擬通事 長岑望通과 檢非違使 秦滋景 등을 보내 全州로 돌려보내게 하였다(先是, 去正月十三日, 新羅交易海藻於貪羅嶋之, 瓢蕩著對馬下縣郡. 嶋守經國加安存給糧食, 并差加擬通事長岑望通·檢非違使秦滋景等, 送皈全州).”

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전달된 탐라국의 진상·조공품에는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보았다.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행 연구 성과에 의지한 채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러다 보니 부분부분 무리한 추정을 앞세우기도 하였음을 자인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을 약속하며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탐라국의 대외교류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백제사나 신라사 혹은 일본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5~8세기 탐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탐라국 중심의 시선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5~6세기 탐라국의 대외교섭은 백제와 고구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교섭의 동인과 전개 과정은 탐라국의 주체적인 정세 판단과 대외교섭 노력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476년 백제와의 첫 교섭을 계기로 5세기 후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탐라국이 5세기 말경에 백제가 아닌 고구려를 주요 교섭 대상으로 설정하고 ‘珣’를 진상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660년 백제 멸망을 기점으로 탐라가 신라와 일본 및 당을 상대로 다각적인 교섭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탐라국은 耽羅方脯·耽羅鰓 등의 자국 특산물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함께 牛皮·鹿皮·鰓·海藻 등이 당시 탐라의 주요 산물이자 대외 교섭에 활용된 진상·조공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2021.04.01. 투고 / 2021.04.12. 심사완료 / 2021.04.20. 게재확정)

[Abstract]

Tamra Kingdom's Foreign Exchange and the Items of Diplomatic Gifts in the 5th to 8th Century

Lee, Seung-ho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amra(耽羅) Kingdom's foreign exchange in the 5th to 8th century and also its diplomatic gifts(進上品) deliver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the exchange. In particular, this author points out the fact that research on Tamra Kingdom's foreign exchange has tended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百濟), Silla(新羅), or Japanese history and attempts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situations around Jeju Island(濟州島) in the 5th to 8th century from the standpoint of Tamra Kingdom.

First of all, Tamra Kingdom's foreign negotiation was carried out to Baekje and Goguryeo(高句麗) in the 5th to 6th century, and the motive of such negotiation and process of its development have been found to be grounded on Tamra Kingdom's independent judgment about the conditions and effort for foreign negotiation. Particularly with the chance of its first negotiation with Baekje in 476, Tamra Kingdom recognized the dramatically changing situ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5th century, and around the end of the 5th century, it is supposed that it established not Baekje but Goguryeo as its main target of negotiation and offered 'Okga(玉珂)' as a diplomatic gift.

Meanwhile, it is also found that with Baekje's collapse in 660 as a starting point, Tamra performed multilateral negotiation with Silla, Japan, and Tang(唐) Dynasty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its negotiation with Japan, Tamra Kingdom used its national specialties such as Tamra-Stockfish(耽羅方脯) and Tamra-Abalone(耽羅鮑), and supposedly, along with those, items like cowhide(牛皮), deer skin(鹿皮), or seaweed(海藻) should have been adopted not only as Tamra's main products but diplomatic gifts for foreign negotiation at that time.

□ Keyword

Juho(州胡), Seobra(涉羅), Tamra(耽羅), Okga(玉珂), Tamra-Abalone(耽羅鮑)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립제주박물관 편,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 서경문화사, 2017.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中國正史 東夷傳 校勘』, 2018.
 이청규,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재미하 외,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2. 논문

-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 서경문화사, 2017.
 강창화, 「耽羅 以前の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 10, 2003.
 김경주,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 -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경주,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2018a.
 김경주,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탐라문화』 57, 2018b(「탐라 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재수록).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忱彌多禮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3.
 김희만, 「신라와 탐라의 관계기사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8, 2018.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2018(『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재수록).
 심재용, 「김해 대성동고분의 변천과 가락국사」, 『가야고분군V-가야고분

- 군 연구총서 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9.
-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2006.
- 이병도, 「第4篇 三韓問題의 研究; 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 이유진, 「탐라의 대외교섭」, 『탐라문화』 58, 2018(『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재수록).
- 이청규,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성곡논총』 27, 1996.
- 이현정, 「馬具로 본 昌寧地域의 馬事文化」, 『비사벌의 지배자 그 기억을 더듬다』, 국립김해박물관, 2014.
-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史 畵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재수록).
-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 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정재운,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1994.
- 진영일,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2000.
-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 최희준,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탐라문화』 58, 2018(『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재수록).
- 笥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記研究』 262, 1989(「耽羅王權과 日本」, 『탐라문화』 10, 1990).

森公章, 「耽羅方補考 -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 『續日本紀研究』
239, 1985.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6.

